

축산 가공식품 관리업무

배 상 호

1997년 2월 28일 행정쇄신위원회는 그동안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부처간 마찰과 부작용을 빚어온 「축산물가공식품 관리업무」의 관장부서를 조정토록 결정하여 농림부가 축산물의 생산에서 가공판매까지 전과정에서의 인허가, 감독 등 제반행정 및 위생검사업무를 관장하고, 보건복지부는 제3자적 입장에서 최종 판매단계의 축산물가공식품에 대한 검사에 참여하되 검사결과 발표는 농림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위생관련기준도 농림부가 보건복지부와 합의를 거쳐 제정 시행토록 하였다.

지난 '62년부터 농림부가 일관되게 관리해온 축산물가공업자가 5공시절인 '84년 가축의 사육과 도축 그리고 원유의 생산과 집유는 농림부가 관장하고, 육류가공·우유가공 및 유통판매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토록 이원화됨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체는 지도·감독의 중복으로 인한 불만을 제기할 뿐 아니라 지자체도 유사한 업무가 축정과(농수산유통과)와 보건위생과로 이원화되어 업무추진상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으며 WTO체제하에서 외국과의 축산물 관련 통상마찰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웠고 또한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가공식품개발 등 종합적인 축산정책 추진이 곤란하여 소비자, 농민피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축산물가공식품의 관리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부처간 이기주의의 모습으로 보여질까봐 자못 염려가 되지만, 본건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문제와 개방화시대에 축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1차 생산부서로 일원화되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명제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다.

몇가지 중요한 사유를 정리하면 첫째, 축산물은 일반식품과 달리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되는 전염성 질병이 전체 가축전염병 137종의 약 70%(OIE 통계)이며 그밖에 동물에서 유래되는 기생충병(촌충)이나 위험한 식중독균(대장균 O-157:H7)이 많으므로 국민보건위생차원에서 전세계적으로 수의사 전문조직에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육류나 우유는 부패, 변질되기 쉬우므로 가축의 도살·가공·유통과 원유의 집유·처리가공이 동일한 작업장내에서 일관되게 제조·관리되어야만 세균의 오염을 최소화하여 신선한 축산물을 냉장체제로 유통시키는 소위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일관성 있는 제조 및 위생관리로 국민보건 위생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것이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최근 채택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HACCP제도(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 분석 및 중점관리)인 것이다.

셋째, 개방화시대에 우리나라의 축산업의 살길은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여야 하며, 이 길이 바로 수입육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가축의 생산뿐 아니라 국민의 기호에 맞는 가공산업육성도 적극 추진하여 1차 생산자(농민)에게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서 WTO체제에 대응하는 길이며 이런 차원에서 농림부에서는 축산물가공산업 및 유통·판매단계까지 총 4,586('91~'96)억원을 지원하고 있

※ 농림부 가축위생과장

다.

'85년 보건복지부로 축산물가공업부가 이관된 이후 몇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례를 보면 '95년 10월 젖소의 유방염우유(일명 고름우유) 사건 때 시유중에 항균성 물질의 잔류 발표로 부처간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소비자는 불신하고 우유는 남아돌게 되었으며, '96년 8월 소의 간에서 병원성 대장균 O-157:H7이 발견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서 발표하였으나 사람에는 발생보고가 없었고, '96년 9월 분유중에 발암물질(DOP Phthalate)이 있다고 식품의약품 안전본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소비자는 불안하고 생산자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소값은 하락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식육판매업에서의 소비자 가격은 연동하여 내리지 않으므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피

해를 보고 있고 이외에 축산물과 그 가공제품을 수출 시에는 농림부산하 동물검역소에서 위생검사후 검역관(수의사)이 검역증명서를 발부하고 있으나 수입축산물중 지육, 포장육, 원유는 보건복지부로 부터 위임 위탁을 받아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책임과 권한을 함께하며, 개방화시대에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와 축산업의 국제경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은 백번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축산식품관리업무 일원화」 조치를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양부처는 「축산물위생처리법」과 「식품위생법」을 각각 개정하고, 법개정과 동시에 관장업무의 이관을 위해 소관부처의 직제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소 수정란이식 이틀라스

(Atlas of Bovine Embryo Transfer)

저자 : 황석우 · 손동수 · 이병천 · 신태영 · 최상용 · 이광원

수정란 이식기술의 보급에 있어 그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ATLAS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법 및 재료를 근간으로 사진을 수집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칼라 A4 size 200매)

- ◎ 가 격 : 30,000원 (송금후 발송처를 명기바람)
- ◎ 송금구좌 : 농협중앙회 신촌지점 (037-17-001052)
- ◎ 예 금 주 : 대한수의사 ☎ (02) 392-2526